

 교육부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19. 12. 16.(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동북아교육대책팀	담당자	팀 장 최동일 (☎ 044-203-7040) 교육연구사 이상수 (☎ 044-203-7044)		
담당기관	한국교육과정평가원	담당자	교과검정센터장 조용기 (☎ 043-931-0493) 연구위원 신항수 (☎ 043-931-0367)		

**한국사 교과서는 엄정한 검정심사 기준을
준수하여 개발되었습니다.**

- 언론사명 : 조선일보 [유소연, 손호영, 표태준, 박세미 기자]
- 보도일시 : '19. 12. 16.[월]
- 제목 :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‘천안함 폭침’ 뺐다
 “文정부 노력으로 한반도 큰 전환점” 교과서에 文비어천가
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…좌편향 교수·전교조 출신이
 대부분 장악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검정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위원 구성 및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검정심사위원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성*되었으며, 교과서 제재와 내용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,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집필진이 기술하였습니다.

* (검정심사위원) 역사학계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,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을 통해 선정

□ 교육부는 다양하고 질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*하여 검정역사교과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.

* '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' 제45조 제3항에 의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

○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공통기준(헌법 정신과의 일치, 교육의 중립성 등)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
○ 교육부는 검정기관과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.

